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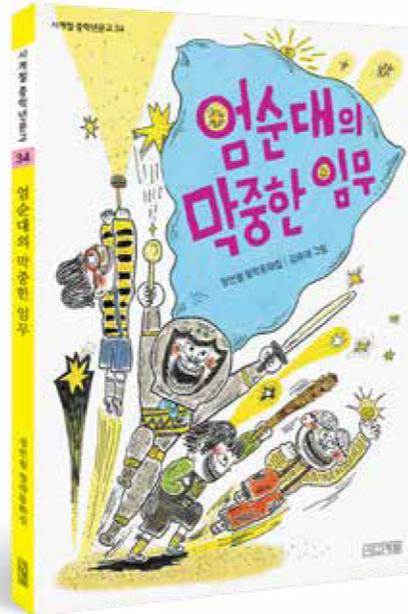
엄순대의 막중한 임무

정연철 지음 | 김유대 그림



※ 여기 실린 독서 지도안은 10차시를 기준으로, 한 차시에 두세 가지 활동을 넣어 구성했습니다. 각 독서 지도안은 해당 도서의 성격에 맞게 조금씩 다른 구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급 구성과 교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골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든 독서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http://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학년 국어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

1~2학년 통합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 다양한 가족의 형태

3~4학년 국어

글 속의 생각을 찾아 / 생각을 나누어요 / 감동을 표현해요

분 야 한국 창작동화, 단편동화집, 생활 동화

활 용 토론, 독서 퀴즈, 짧은 글 쓰기

주 제 어 #장애 #차별 #학교생활 #용기 #별명 #다름 #가족 #자존감

선 정 내 역 온라인서점 알라딘 선정 좋은 어린이책 · 북토크 선정도서 ·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작 성 상주 상영초등학교 오은경 선생님

어떤 책인가요?

■ 책의 내용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유쾌하고 특별한 일들을 담은 단편동화집. 치킨과 동생을 지키는 용사 구윤발, 할머니 만을 위한 명배우 엄순대, 빼빼로 못 받은 아이들 모임 회장 황소라, 아주아주 낙천적인 정다운. 이들은 서로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넘어져 다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 줄 수 있습니다. 제복만큼이나 엉뚱하고, 웃기고, 코끝이 찡한 네 편의 단편동화에 '함께 살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 알라딘 독자 '저녁들길' 님의 책 소개

이야기에는 모두 남들과는 다른, 사회와 학교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쓸데없는 동정을 보이거나, 잘해 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이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동화를 쓰면 아이들이 마냥 착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이야기 속에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거나 선생님을 마냥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 불편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들을 어른들과 똑같이 같등하고 고민하는 동등한 존재로, 어리지만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순수한 호의를 보일 줄 알며, 부모나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어른들의 입장도 이해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3학년 이상의 아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 동신초등학교 정현이 선생님의 책 소개

같은 집, 교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사이라도, 우리는 단 한 명도 생각과 마음이 똑같을 수 없다. 『엄순대의 막중한 임무』에는 서로 무척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야기 네 편 「빛의 용사 구윤발」, 「엄순대의 막중한 임무」, 「빼빼로 회장 황소라」, 「아주아주 낙천적인 정다운」의 등장인물들은 가족과 친구를 통해 '나'와 '너'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모두가 '나'만 생각한다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다. 『엄순대의 막중한 임무』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나'들이 주변을 바꾸어 가는 이야기이다. 이 책 속 건강한 생각과 마음이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오롯이 전달되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학습 목표

- 책 속 인물들의 특징과 속마음을 살펴봄으로써 인물의 성격과 환경을 이해합니다.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왜 사건을 일으켰는지 주요 장면을 만들어 보고 나라면 어땠을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임을 알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찾아봅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빛의 용사 구윤발	<구윤발을 소개합니다> - '빈 의자' 활동으로 구윤발 소개하기 - 구윤발의 내면과 외면 채우기 - 구윤발을 소개하는 글 쓰기	1차시
	- 오빠에 대한 윤지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 - 가족들이 구윤발에게 하고 싶은 말은?	1차시
엄순대의 막중한 임무	<엄순대를 소개합니다> - '빈 의자' 활동으로 엄순대 소개하기 - 엄순대의 내면과 외면 채우기 - 엄순대를 소개하는 글 쓰기	1차시
	- 엄순대의 1인 10억 따라 하기 - 할머니의 편지 쓰기	1차시
빼앗모 회장 황소라	<황소라를 소개합니다> - '빈 의자' 활동으로 황소라 소개하기 - 황소라의 내면과 외면 채우기 - 황소라를 소개하는 글 쓰기	1차시
	- 황소라, 이것이 알고 싶다! - 이런 모임 어때요?	1차시
아주아주 낙천적인 정다운	<정다운을 소개합니다> - '빈 의자' 활동으로 정다운 소개하기 - 정다운의 내면과 외면 채우기 - 정다운을 소개하는 글 쓰기	1차시
	- 인태의 마음 알아보기 - [공감 놀이] 이럴 땐 나도 속상해!	1차시
독서 후	- 인물 샐러드 놀이 하기	2차시
	- 우리 반 친구를 소개합니다!	

지도안의 특징

- ① 『엄순대의 막중한 임무』는 네 편의 이야기가 담긴 단편동화집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쉬운 이야기에 담았기 때문에, 저학년 대상으로도 중학년 대상으로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저학년은 인물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중학년은 인물들의 관계와 숨어 있는 주제를 찾는 활동으로 이끌어 주세요.
- ② 『엄순대의 막중한 임무』 독서 지도안은, 매 단편이 시작할 때마다 주인공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 위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빈 의자 활동'과 '내면과 외면 채우기', '짧은 글 쓰기' 활동이 반복됩니다. 가능하면 매 단편을 시작할 때마다 이 활동을 반복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같은 활동이 반복되는 것을 오히려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으므로, 모둠별로 하나의 단편을 정해 그 단편에 대해서만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빛의 용사 구윤발」

1-1) '빈 의자' 활동으로 구윤발 소개하기

모두 함께 책을 읽은 뒤, 새로 알게 된 친구 '구윤발'을 소개해 봅시다. 구윤발에 대한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앞 사람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되,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아요. 바로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패스'를 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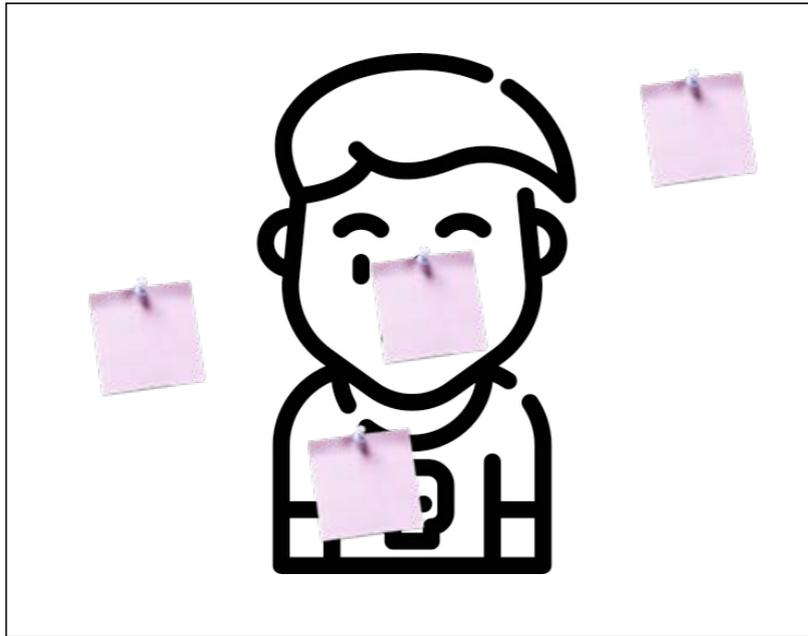
선생님께 모두 함께 첫 번째 단편을 읽은 뒤, 빈 의자 하나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빈 의자에 구윤발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윤발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니다. '스무 가지 이상 말하기' 등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야기해도 좋고, 더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내용이어도, 읽었던 내용을 많이 떠올리는 것이 이 활동의 중점입니다.

예시) 구윤발은 아버가 주윤발을 워낙 좋아해서 지은 이름이다. 구윤발에게는 여동생이 있다. 구윤발 동생 이름은 구윤지다. 구윤발은 지진 대피 요령을 알고 있다.

1-2) 구윤발의 내면과 외면 채우기

'빈 의자' 활동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메모지에 구윤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꼭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특징이어도 좋고, 윤발이의 성격이나 속마음을 짐작해 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윤발은 어떤 친구인가요?

자신이 적은 메모지를 친구들에게 읽어 주고, 전지에 그려진 구윤발 그림에 붙여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특징은 그림의 바깥쪽, 속마음에 대한 내용이면 그림의 안쪽에 붙입니다.



선생님께 모둠별로 전지를 나누어 주고 구윤발을 크게 그립니다. 반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이라면 칠판에 그립니다. 책과 똑같이 그리거나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윤발의 내면과 외면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선을 분명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의자' 활동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구윤발'에 대한 특징을 적어 봅니다. 짐작한 내용이어도 된다는 것을 알려 주며, 아래의 예시를 들려주어도 좋습니다.

예시) 구윤발은 4학년이다. 구윤발은 동생을 지키고 싶어 한다. 구윤발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할 것 같다. 구윤발은 윤지 팔을 깨운 것을 후회한다.

1-3) 구윤발을 소개하는 짧은 글 쓰기

이제 여러분은 구윤발의 겉모습과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많은 사실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모습은 무엇인가요? 짧은 글로 구윤발을 소개해 보세요.

내 친구 구윤발을 소개합니다. 구윤발은...

선생님께 메모지 내용을 참고하여 구윤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소개하는 글을 씁니다. 긴 글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종이를 나누어 주거나, '몇 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을 정합니다. 짧은 분량으로 적어야 할 때, 자신이 가장 인상 깊게 여긴 부분을 적게 됩니다.

2. 구윤발에 대한 동생 윤지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모둠별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모둠별로 윤지의 감정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한 장면을 선택해서 역할극으로 표현해 보세요. 왜 그 장면을 골랐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선생님께 모둠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윤지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들의 답을 칠판에 받아 적습니다. 나온 의견 가운데, 모둠별로 한 가지 감정을 정해 그 감정이 잘 드러난 책 속 장면을 찾아 역할극을 만들도록 합니다. 모둠 활동에 익숙한 학생들이라면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장면을 정합니다. 역할극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택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3. 교실 가운데 빈 의자를 두고 둘러앉아, 윤지나 다른 가족의 마음으로 윤발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자유롭게 빈 의자에 다가가 말해 봅니다.

선생님께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주세요. 토론 마지막에는 다함께 윤지처럼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빛의 옹사 구윤발!" 하고 외치며 마무리해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엄순대의 막중한 임무」

1-1) ~ 3) <엄순대를 소개합니다>

2. 엄순대는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다면 1인 10억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순대는 할머니에게 어떤 역할을 해 드렸을까요? 책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역할을 두 가지 이상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할머니 역할, 엄순대 역할을 정해 역할극을 해 봅니다.

3. 아래 글을 읽고 상상해 봅시다.

세월이 흘러 결국 순대네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방에서 편지가 발견되었다. 할머니가 정신이 가끔씩 온전하게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순대에게 써 놓은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고 할머니의 마음으로 엄순대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사랑하는 손자, 재범아

세 번째 이야기, 「빼뿔모 회장 황소라」

1-1) ~ 3) <황소라를 소개합니다>

2. '빼뿔모 회장 황소라'와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야기 속 황소라를 직접 만난다면 하고 싶은 질문을 적어 보세요. 그런 다음 동글게 둘러앉아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나 황소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친구들 중 한 명에게 '황소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하면, 질문 받은 친구가 황소라가 되어서 답해 봅니다.

내가 황소라에게 궁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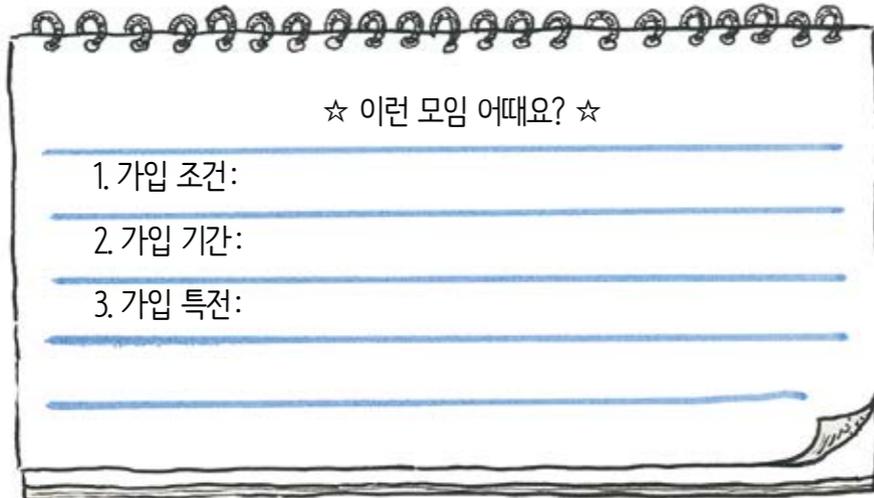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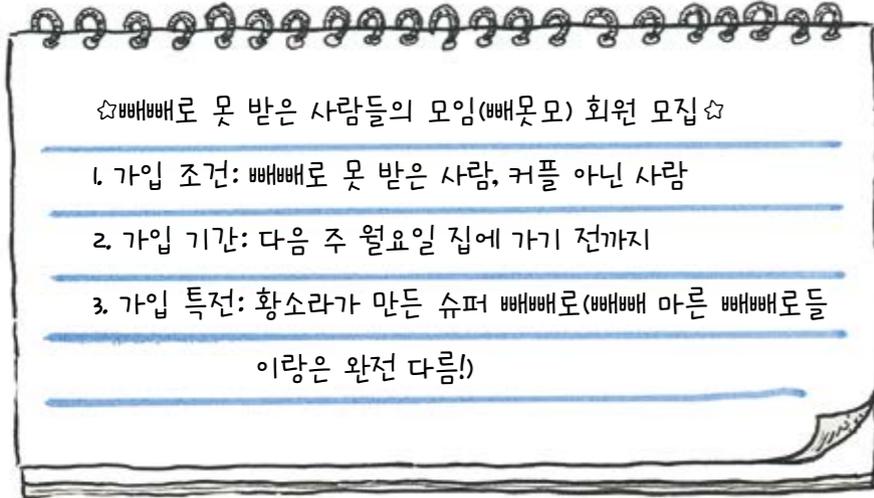
선생님께 진행자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교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못 하는 학생이 있으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나 보다" 같은 말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교사가 진행자라면, 소라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합니다. 슈퍼 빼빼로를 학교에 가져온 이유, 빼뿔모 모임을 만들 때 까지의 사건에 집중해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물어보세요. 황소라의 떨리는 마음, 긴장감, 부딪힘 등 다양한 마음을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이 진행자라면, 진행을 맡은 학생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미리 '황소라에게 묻고 싶은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질문 예시) 소라가 만든 슈퍼 빼빼로를 가방에 넣을 때, 선생님의 호령에 슈퍼 빼빼로를 꺼내 놓을 때, 빼빼로를 아이들 앞에서 먹고 직접 만든 거라고 말할 때, 친구들이 빼빼로 먹고 싶다고 말할 때, 이슬아와 고영준이 잼싸게 빼빼로를 먹을 때, 빼뿔모 모집 글을 쓸 때, 선생님이 가입해도 되냐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3. 소라네 반에는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생일이 같은 달인 애들 모임 '생갈모', 엄마들과 함께 카페 가는 애들 모임 '엄카모', 커플 있는 애들 모임 '커플모'……. 만약 여러분이 반 친구들과 모임을 만든다면, 어떤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모임 이름과 가입 조건 등을 생각해 보고 소라가 한 것처럼, 회원 모집 카드를 써 보세요.



선생님께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 있게 홍보문을 꾸미게 합니다. 작성한 홍보문은 게시판에 붙여 놓고, 친구들이 만든 모임 가운데 가입하고 싶은 곳을 찾아봅니다. 내용과 반응이 좋으면, 모임을 정말 만들어 보아도 좋습니다. 이런 모임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조심하고 배려하면 좋을지 의논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아주 낙천적인 정다운」

1-1) ~ 3) <정다운을 소개합니다>

2. 인태가 외친 말들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왜 나만 미워해요!”

박인태는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계속 울었다.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왜 정다운만 좋아해요? 왜 정다운은 잘못해도 봐줘요? 불공평해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왜 혼내기만 해요? 맨날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 지르고! 나도 지각 안 하고, 밥도 잘 먹는데 왜 칭찬 안 해주냐고요!”

(『엄순대의 막중한 임무』 135-136쪽)

인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인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공감 놀이를 통해 마음을 나뉘 보아요.

놀이 방법

- ① 칠판에 감정 낱말 카드(화나, 기분 좋아, 슬퍼…)를 붙입니다.
- ② 반 아이들은 둘로 나뉘어, 교실 양쪽 벽에 붙어 섭니다.
- ③ 왼쪽 벽에 선 한 명이 먼저 “나는 ○○○○ 할 때 속상해!”라고 외칩니다.
- ④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도 그럴 때 속상하다면 “나도 속상해!”라고 크게 외치면서 그 친구에게로 뛰어갑니다. 속이 후련해지도록 크게 외쳐 보세요.
- ⑤ 이번에는 오른쪽 벽에 선 친구가 “나는 …할 때 화가 나!” 하고 외치고 거기 공감하는 친구들은 “나도 화가 나!”를 외치며 오른쪽 벽으로 가서 섭니다.
- ⑥ 서로가 힘들고, 속상하고, 기뻐던 순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 벽에 선 친구들이 순서대로 교실 가운데에서 만나, 다운이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를 안아 주고 놀이를 마칩니다.

선생님께 처음에는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여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느낀 감정을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사람이 더 많이 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반 친구들이 서로 알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나는 혼자 밥먹을 때 속상해! / 나는 누구와 비교당하면 너무 화가 나! / 나는 편지를 받으면 행복해!

독서 후



1. 우리만의 '인물 샐러드' 놀이를 즐겨 보아요.

놀이 방법

- ① 의자를 둥글게 놓고 앉습니다. 사람 수보다 의자 수를 하나 적게 합니다.
- ② 앉은 순서대로 구윤발, 정다운, 황소라, 엄순대 팀을 정해 골고루 나눕니다.
- ③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려서, 각 팀의 동작을 정합니다.
- ④ 이제 솔래가 "구윤발!" 하고 외치면 구윤발 팀이 일어나 서로 자리를 바꾸고 그 틈에 솔래가 빈 자리에 앉습니다. 이 때 움직이는 사람은, 미리 정한 구윤발 팀의 동작을 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 ⑤ 솔래가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르면, 두 팀이 지정 동작을 하며 자리를 바꾸어 앉으면 됩니다.
- ⑥ 솔래가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하고 외치면 모두가 자기 팀의 지정 동작을 하면서 모두 자리를 바꿉니다.

선생님께 각 팀의 지정 동작은, 그 인물이 씩씩하고 당당했던 순간을 떠올려 정하면 좋겠습니다.

예시) 구윤발 -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빛의 용사 구윤발!"이라고 외친다.

정다운 - 지우개를 쥘 행동을 하면서 "고마워."

황소라 - 빼빼로를 먹는 동작을 하며 "빼빼모를 모집합니다."

엄순대 - 가슴을 치며 "걱정마, 나만 믿어!"

2. 우리 반 친구를 소개해 봅시다. 책 뒷표지에 적힌 글처럼, 우리 반 친구를 한 줄짜리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나요? 친구의 장점과 특징을 살린 재미있는 소개글을 써 보세요.

선생님께 학급의 특성을 잘 살피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줄 소개글을 발표하거나, 소개글만 듣고 '누구를 소개한 글인지 맞추기'를 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치킨과 동생을 지키는 빛의 용사 구윤발
오직 할머니만을 위한 명배우 엄순대
선물 못 받은 아이들의 모임 회장 황소라
느려서 친구를 오래오래 안아 주는 정다운

서로 달라서 아옹다옹하고 넘어져 다칠 때도 있지만
다르니까 서로를 지켜 줄 수 있고
달라서 꼭 닮고 싶어지는
우리 가족,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